보 도 자 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배포 일자	2026.11.19.(목)/ 총 4매(본문 2, 붙임 2)	
자료 제공	·해양연구본부 해양관광·문화연구실 - 이슬기 실장(051-797-4768), 오지운 전문연구원(051-797-4802), 김예림 전문연구원(051-797-4797)	
배포 부서	·성과홍보실(강자운 행정원 051-797-4396, 이선우 실장 051-797-4381)	
보도 일시	즉시 보도 부탁드립니다.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www.kmi.re.kr		

“바다의 유산, 시민 곁으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문화유산 북토크 · 전시회 개최

– 우리 바다의 '처음'을 기록한 「기억해야 할 해양문화유산(下)」, 국회부산도서관서 시민과 만나다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은 해양문화유산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11월 21일(토) 국회부산도서관과 공동으로 「기억해야 할 해양문화유산(下)」 발간 기념 북토크 및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 책은 32편의 이야기를 통해 그동안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바다의 역사와 사람들의 삶을 조명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난파선 ‘영흥도선’과 해녀보다 먼저 문헌에 등장하는 남성 잠수 어민 ‘포작인’ 등이 대표적이다. 집필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진과 대학·박물관·지역 연구기관 등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16명이 참여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최초’와 ‘유일’의 가치를 지닌 우리 바다의 유산을 발굴해 분야별 ‘제1호 해양문화유산’으로 기록해 왔다. 2023년 발간한 상(上)권에 수록한 27편을 포함해 지금까지 두 권으로 소개한 이야기는 모두 59편이다.

북토크는 11월 21일(토)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국회부산도서관 2층 생각정원에서 열린다. 하(下)권에서 부산항의 부두와 등대를 다룬 강동진 경성대학교 교수가 ‘부산항 근대화의 첫 관문, 부산항 제1부두’를 주제로 이곳이 항구도시 부산의 성장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소개하고, 참석한 시민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올해는 부산항 개항 150주년이 되는 해로, 이번 북토크는 시민들이 부산항에 한층 친숙하게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토크와 연계한 전시는 같은 날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린다. 「기억해야 할 해양문화유산(下)」에 수록된 주요 해양문화유산과 관련 사진 자료 등을 선보이며, 북토크 이후에도 누구나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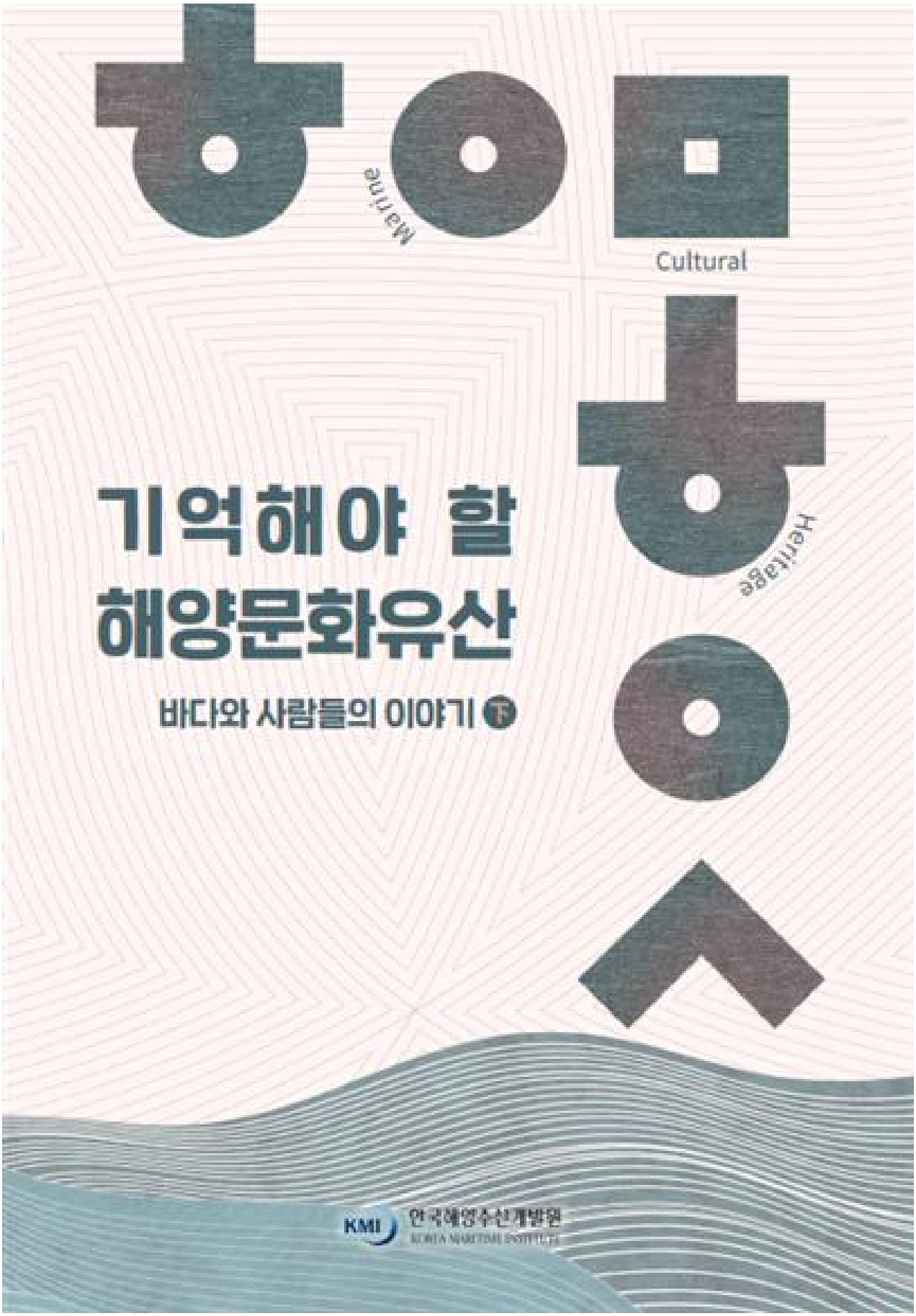
시민들이 해양문화유산을 더욱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도서 배포와 참여 이벤트도 마련된다. 북토크 참석자와 전시 관람 후 설문조사 참여자에게는 「기억해야 할 해양문화유산(下)」 단행본을 증정할 계획이다.

※ 행사 상세 안내: https://busan.nanet.go.kr/education/eduDetail.do?eduId=490

조정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은 “우리 바다 곳곳에는 그 가치가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유산이 남아 있다”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해양수산 정책을 뒷받침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해 온 해양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바다의 역사를 발굴하고 기록하는 일에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관련 문의는 해양연구본부 해양관광·문화연구실 김예림 전문연구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yelimkim@kmi.re.kr)

<붙임 1> 「기억해야 할 해양문화유산(下)」 표지



<붙임 2> 「기억해야 할 해양문화유산(下)」 발간기념 북토크 및 전시 포스터

